

세종 폐불 북방 불교 쇠퇴... 중국불교 주도권 남방으로

<31> 오대·십국 군신들의 멸불(滅佛)과 봉불(奉佛)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했던 당조(唐朝)는 안사(安史)의 난을 시작으로 점차 기울다가 황소(黃巢)의 난(875~884)을 계기로 결국 절도사 주전충(朱全忠)에게 멸망했다(907). 당의 멸망으로부터 송(宋)이 다시 통일(977)되기까지 약 70년간 중국의 북방지역에서는 다섯 왕조가 교체됐고, 강남 일대에는 10개의 크고 작은 군벌이 난립했다.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오대(五代)·십국(十國)시대라고 부른다.

5대는 북방을 지배했던 왕조들로서 양(梁)·당(唐)·진(晉)·한(漢)·주(周)의 다섯 왕조를 말한다. 후대의 사가(史家)들은 이전에 존재했던 같은 이름의 왕조와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후(後)'자를 붙였다. 십국은 각 지방에서 일어난 지방정권을 말하는 데, 오(吳)·남당(南唐)·오월(吳越)·민(閩)·형남(荆南)·조(楚)·남한(南漢)·전촉(前蜀)·후촉(後蜀)·북한(北漢) 등을 말한다. 이러한 오대십국의 정치상황은 불교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기(末帝紀) 이러한 사도승의 금지와 승단의 관리는 오대 전제왕조의 정책이기도 했다.

오대 말년에 이르러 불교에 대한 정책은 가혹해졌다. 후한(後漢) 건우(乾祐) 2년(949) 이흥명(李欽明)은 <정태승인소(請汰僧人疏)>를 상주해 "이 무리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누에를 키워 베를 짜는 것에서도 벗어나 있다. 교화에 도움도 되지 않으니, 실로 큰 우환이다. 승려가 많은 것은 병사가 많은 것과 같을 수 없고, 승려가 부유함은 백성이 부유함과 같을 수 없다. 옛날에 진시황이 육국을 병탄하고 천하를 통일한 것은 군병이 많고 백성이 부유한 까닭이니, 승려들을 어찌 남기겠는가"(<전당문> 권585)라고 했다.

같은 해, 변윤(樊倫)은 <금승니제도주(禁僧尼剃度奏)>에서 같은 내용을 상주했다. 후주(後周) 태조 광순(廣順) 3년(953)에 이르러 도성인 개봉(開封)에 "이름 없는 사찰 58개소를 없애라"고 조칙을 내렸



하극상으로 세워진 오대 철저히 승단 관리 불교신봉하던 십국 군주들 덕분에 불교 융성

당을 멸망시킨 주전충은 본래 황소의 부하였으나 당에 귀순해 절도사가 된 후에 다시 반란을 일으켜 후량(後梁)을 세웠다. 이와 같이 북방의 오대는 모두 군벌의 쿠데타, 그것도 부하가 상사를 밀어내고 왕조를 세우는 하극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오대의 정치적 상황은 항상 불안했고, 전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많은 이들이 전란의 화를 면하기 위해 승가에 몸을 맡기는 일이 빈번한데다 오대의 정권에서는 철저히 승단을 관리하게 하고, 후량의 마지막 황제인 용덕원제(龍德元帝) 시기(921)에 사부(嗣部) 원외랑(員外郎) 이구(李愷)는 "천하에 사도(私度)의 승니(僧尼)를 금하고, 망령되어 자의(紫衣)와 사호(師號)를 쓰지 못하게 하며, 출가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길대로 와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환속을 원하는 자는 바로 환속하게 하라"는 내용을 상주했다. 그에 따라 "양도(兩都: 長安과 洛陽)의 거리에 자의를 하사받은 승려들의 명단을 게시하며, 도량이 깊은 사람들을 추천받아 매 명절(明節)을 맞아 양도에 관단(官壇)을 설치해 7인을 득도하게 하고, 모든 지방에서도 출가를 원하는 자는 양도의 관단에 와서 사부(嗣部)로부터 도첩을 받아야 한다"는 조칙을 내렸다.(<구오대사(舊五代史)> 권10, <양서(梁書)> 말재

다. 그 후 세종(世宗)은 현덕(顯德) 2년(955), 폐불을 단행한다. 이것이 바로 '삼무일종(三武一宗)'의 폐불 가운데 마지막이면서 가장 심각한 폐해를 받게 한 법난이다. <구오대사> 권115 <주서(周書)>·세종기(世宗紀)에 따르면, 이로 인해 북방에서 폐사된 사찰이 3336개소, 남은 사찰은 2694개소, 합법적인 승려는 6만1200명이 남았을 뿐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오대의 불교정책과 세종의 폐불은 북방의 불교를 완전히 쇠퇴하게 했고, 중국불교의 주도권은 남방으로 이전되게 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오대의 군신들이 비록 정책적으로 불교를 억압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법을 신앙하는 기록이 상당히 나타났다는 점이다. <구오대사> <불조통기> 등의 자료에는 후량을 세운 주전충으로부터 후당(後唐)의 장종(莊宗) 이존욱(李存勳)과 마지막 황제인 이종가(李從珂), 후진(後晉)의 고조(高祖) 석경당(石敬瑭) 등과 후당의 조신(朝臣)인 장전(張全義) 등의 수많은 중신들이 특정한 불자로서 묘사되고 있음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군주와 중신들의 개인적인 불교에 대한 신앙은 오대 전체의 불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방의 오대에 비해 남방의 십국은 정치적으로 비

교적 안정과 있었다. 특히 오대와는 다르게 십국의 군주들은 대부분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오월(吳越)의 군왕들이 대표된다. 오월은 송(宋) 태종(太宗) 흥국(興國) 3년(978)에 북송(北宋)에 귀순하기까지 7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전란도 없었던 정도로 정치적으로 안정됐다. 이 시기에 오월은 정치적 안정을 틈타 항주(杭州)를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고 또한 역대 제왕의 독실한 신앙으로 인해 불법이 크게 발전했다.

오월의 무숙왕(武肅王) 전류(錢鏐: 852~932)는 젊어서는 도교를 신봉하다가 만년에 깊게 불교를 신앙했다. 무숙왕은 건화(乾化) 원년(911) 홍초(鴻鈞) 법사에게 조칙을 내려 항주 용흥사(龍興寺)에 계단(戒壇)을 열고, 후량 태조 주전충에게 자의(紫衣)와 사호(師號)를 하사할 것을 청했다.(<송고승전> 권25 홍초전) 또한 <불조통기> 권42에 따르면, 무숙왕은 또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출가시키고자 사찰에 보냈으며, 후량의 태조가 '무상(無相) 대사'의 법호를 내렸다고 한다.

오월의 경제적 번영과 무숙왕의 진법교적 성향으로 항주를 중심으로 각지의 고승들이 몰려들었는데, 그에 따라 무숙왕은 수많은 사찰과 탑을 건립해 "오월의 무숙왕이 건립한 사찰과 탑은 다른 9국에서 건립한 것을 합한 것보다 배가 많았다"(<금석해련(金

石萃編) 권112라고 전한다.

무숙왕 전류를 계승한 문목왕(文穆王) 전원(錢元) 역시 독실하게 불교를 신앙했다. 무숙왕은 설봉의존(雪峯義存) 선사의 법을 이은 도부(道愆) 선사를 천룡사(天龍寺)에 주석하도록 청해 '순덕(順德) 대사'라는 법호를 올렸다. 문목왕은 또한 용책사(龍冊寺)를 창건해 도부 선사를 주석하도록 청했고, 오월의 선학(禪學)이 이로부터 흥성했다고 한다.(<송고승전> 권13 도부전)

오월의 제왕 가운데 불법에 가장 열성을 다한 이는 바로 충의왕(忠懿王) 전속(錢俶: 929~988)이다. 충의왕은 평생 대형 사찰 수백 개를 건립했다. 송에 귀순한 이후에는 아들을 출가시키기도 했다. 또한 당시 저명한 고승들, 예를 들어 천대태소(天台大師) 나계(懶菴義寂), 영명연수(永明延壽) 등과 깊은 인연이 있다. 덕소 선사는 법안종의 창립자인 청량문익의 법사로서 전속이 태주(台州)자사를 역임하던 시기에 만나 도를 물었다. 충의왕으로 즉위하자 바로 사자를 파견해 "제자의 예를 다해 국사(國師)"로서 항주를 청했다고 한다.(<석씨계고략(釋氏稽古略)> 권3) 의적 대사는 천태종의 저명한 스님으로서 전속의 귀의를 받았다. 전속은 의적 대사를 위해 특별히 천태산에 나계도량을 건립하고, 조칙을 내려 의적 대사를 청해 강좌를 개설해 천태학설을

물었다. 그때 전속은 천태의 전적들이 완전하지 못함을 알게 되어 그를 개탄하고, 사신을 고려와 일본에 파견해 없어진 천태의 전적들을 모두 복원시켰다.(<불조통기> 권10) 연수 선사는 덕소 선사의 법사로서 전속의 깊은 예우를 받았다. 북송 건륭(建隆) 원년(960), 전속은 영은사(靈隱寺)를 중건하고 연수 선사를 주석하도록 청했고, 다음해 다시 영명사(永明寺)에 머물도록 청했다. 또한 전속은 <송고승전>의 저자로 유명한 찬녕(贊寧)대사를 양절(兩浙)의 승통(僧統)으로 삼았다.

북방 오대에서의 불교에 대한 통제와 멸불, 남방 십국의 진법교적 정책은 중국불교의 중심지가 북방으로부터 남방으로 옮겨지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했고, 또한 전체적인 중국불교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다양한 교의가 치열하게 개진돼 화려한 종파불교의 시대를 연 것이 당대(唐代) 불교의 특징이라면, 오대·십국 시기에서는 그러한 종파들이 점차로 선종(禪宗)으로 통합돼 가는 일종의 통불교적인 성향을 나타내 보였다. 여기에는 바로 남방의 군왕들의 정치적 입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이는 또한 중국 기사불교의 중요한 맥이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 정보 726호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하남시 도로가 건물, 바로앞 버스정류장 ● 평수: 약 30평 ● 법당 약 25평, 요사10평 ● 교통 매우 편리, 즉시법회가능 ● 전세 4천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9411-5302	포교원 (급)안내 ● 위치: 전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40평 ● 상가: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방3개 법당 ●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철충가능) 010-2259-6787	포교당 안내 ● 위치: 양산시 북부동 ● 평수: 86평(법당 46평) 방3칸, 공양간 ● 삼존불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보살) ● 전세35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및 비품대는 ● 상의 후 결정 010-8011-7444	포교원 (급)안내 ● 위치: 군포, 안양지역 ● 평수: 76평, 방4개 ● 공간감, 샤워실, 화장실별도 (스님만 쓸수 있는 곳)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13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685-6740	탈 종 공 고 ● 사찰명: 삼화사 ● 법명: 각암 ● 직위: 종정대행 ● 주소: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2리 1290 ● 사찰명: 삼화사 ● 법명: 월명 ● 직위: 비구니부장 ● 주소: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2리 1290 ● 사찰명: 자은사 ● 법명: 자은 ● 직위: 감찰부장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569-4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장대행	
	포교당 안내 ● 위치: 전남 광양시 광영동 명진사 ● 특징: 약 50평, 삼존불 외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 목단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500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3163-5014	팬션같은 암자 토굴안내 ● 위치: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대지 250평, 건물 25평 ● 황토벽돌,기와지붕,목욕탕 ● 수세식화장실,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방문 답사 후 결정 ● 매수자가 법당 지을시 ● 법당터 무상보시(스님들 한해서) 010-3169-5364	사찰 (급)안내 ● 위치: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신,후불신,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급세 가능) ●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서울 이동 관계로 010-3019-2236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기도하기 좋고 그림,글씨기 좋은곳 ● 정원 앞 폭포 계곡 사시사철 물 많음, 서출동류수 ● 대지 200평, 건물 50평 ● 운동장 ● 합 1천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0-3782-7083		임법당 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5,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3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2칸 ● 보증금 1천만원 / 월60만원 ● 모든시설 완비(시설A급) ● 시설비 2300만원 010-2208-4899 053)552-6487	부자가 되는 명당 ● 땅: 관리지역 약 1만평 토목공사 완료 ● 건물: 신축 원룸 60평식 2동 20평 토굴 1동 ● 가액: 15억 중 5억 대출가능 ● 용도: 팬션,기도원,연수원, 전원주택 불사 가능 투자 가치 100% 010-8992-6787	포교원 안내 ● 위치: 강남구 역삼동 ● 실평수: 16평 ● 방1, 삼존불, 탕화, 기타 ● 보증금 1,000만원 ● 월 7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8795-2832	포교당 안내 ● 위치: 청량리역 2분거리 ● 5층건물중 5층 전체사용 80평중 마당 30평, 법당 30평 방2,거실1,욕실2개,부엌1,다락1 ● 삼존불,지장단,1차원불 5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5800만원(철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2069-0824		암자(토굴)안내 ● 위치: 전남 벌교읍 ● 대지 120평 ● 기와집, 수세식 화장실 ● 시설완비 ● 가액: 2천5백만원 010-3541-2314